

[스완슨 목사님에 대한 회상]

스완슨 목사님에 대한 회상

- ◆ 4개 보육원 원장님들의 회상으로 구성됨.

1. 김천 K-18 베다니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 김대해 목사

김천 베다니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K-18 Bethany Christian Children's Home)의 김대해(Kim Dae Hae) 목사는 스완슨 목사님을 만나 함께 일했던 한국 컴패션 초창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저는 김천에 있는 베다니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의 김대해 원장입니다. 1953년 7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스완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듬해 6월 처음으로 우리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장작용 지게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어린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먹고 살았습니다. 135명의 어린이들이 천막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았습니다. 한 번은 한밤에 비가 쏟아져 신발과 텐트를 쓸어내 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맨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스완슨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100평짜리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일부를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아버지와 같았고, 주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는 목사님이 항상 아주 가까이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은 강 전도사와 함께 일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돈을 오용하여 어린이들을 방치한 채 저 자신을 위해 배 과수원을 샀다고 스완슨 목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스완슨 목사님이 김천에 오셔서 호텔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그 목사님과 강 전도사님도 증인으로 와 계셨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저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먹이는 데 썼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수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냥 추측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그들의 보고가 사실이 아님을 깨닫고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입니까? 회개하고 김대해 원장님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서노회(Kyungsuhy Presbytery)에 속했고, 노회에서 5번의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목사가 어떻게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며, 목사에게 합당한 직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스완슨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은 좋은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주님을 섬겼는지 후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부산 K-12 힐사이드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 임성운 장로

다음은 부산에 있는 K-12 힐사이드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K-12 Hillside Christian Children's Home)의 원장님 임성운 장로님(Elder Lim Sung Un)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K-12 힐사이드 크리스천 칠드런즈 보육원의 원장이며,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이고, 한국 전쟁 때 혼자 남한에 왔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고, 항구 도시인 부산은 난민들, 특히 전쟁고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는 떠돌이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이는 컴패션 보육원 K-25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25명의 청소년들을 데려와 1954년 6월에 그들에게 판잣집을 마련해 주었고, 이것이 부산의 동쪽 문현동에 있는 우리 보육원의 시작입니다.

많은 고아들과 떠돌이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원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던 어린이들은 아무 도움 없이 겨우 생존했지만 케어(CARE)에서 보낸 구호 상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CARE의 후원자였던 한 여성은 우리 보육원 사정을 알고 1957년 1월 스완슨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 저의 상황을 알리고, 부산에 주재하는 선교사를 알고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선교사였던 브루스 헌트(Bruce Hunt)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는 기꺼이 저를 대신하여 스완슨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1957년 5월에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원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어린이들의 삶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몇 명의 어린이들을 중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1958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월 1일에 한국에 오신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26평이 안 되는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25명과 직원 3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육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있지만 계획을 실행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1958년 5월

¹국제 원조 구호 기구(CARE, Cooperate and Relief Everywhere): 1940년대에 교전국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구호 단체이다. 현재는 10여개국의 멤버들로 '케어 인터내셔널'이 결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C%9B%90%EC%A1%B0_%EA%B5%AC%ED%98%B8_%EA%B8%B0%EA%B5%AC).

1일, 우리 보육원을 처음 방문하신 후 부산 용락교회(Yongnak Church)에서 부흥집회를 가지셨습니다. 교회는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기독교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6월 6일, 목사님은 저를 다시 서울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보육원은 저에게 지옥 같아 보였지만, 어린이들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새 보육원을 위해 4,000달러 수표를 드립니다. 기금은 제 친구 중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는 1960년 4월 16일에 이 아름다운 보육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보육원으로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육원은 100명의 어린이들과 직원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일곱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1965년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같은 해 11월에 비전트립 그룹과 함께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1월에 비전트립 그룹은 계획대로 부산에 왔지만 스완슨 목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 원장님들이 동래관광호텔(Dongnae Tourist Hotel)에서 비전트립 그룹을 만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식에 원장님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가 많지 않았던 비전트립 참가자들은 그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에 너무 놀라고 감명을 받아 즉석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금으로 캠페션은 목사님을 위한 기념관을 지었고, 이 건물은 지금까지 캠페션 한국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 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국민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훌륭한 인품을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매우 검소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목사님께 청와대에서 훈장을 수여하려 할 때 짙은 색 정장을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한 벌을 마련하셔야 했고, 그것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맞춘 양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맞춤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기성복으로만 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재단사에게 맞춤 정장을 해 입을 수 있지만,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겸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저의 헌신은 원장님이나 한국 정부의 훌륭한 봉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완슨 목사님이 캠페션을 위해 세운 원칙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수 기독교인이었고, 누구보다 겸손하셨고, 검소한 삶을 사셨으며, 한국 어린이들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캠페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전주 K-60 전남 칠드런즈 보육원, 윤병진 장로

다음은 전주 K-60 전남 칠드런즈 보육원(Chunnam Children's Home)의 이사장 윤병진(Yoon Byung Jin)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스완슨 목사님과의 첫 접촉은 광주에 계셨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브라운(Brown) 목사님이 우리 보육원을 대신하여 목사님께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2월, 스완슨 목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보육원을 방문하셨고, 3월 대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첫 지원금으로 1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후원이 500명까지 늘어났고, 목사님은 식당, 예배실, 주방, 어린이들의 방 및 낡은 숙소를 허물고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50,000달러의 금액을 빌려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마당에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고 계획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컴패션의 지원으로 우리 보육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먹고 입는 것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은 "2양 떼를 떠나서(I was a wandering sheep)"이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그 찬송가는 저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 K-10 러브 앤 호프 칠드런즈 보육원, 박훈철 장로

다음은 대구 K-10 러브 앤 호프 칠드런즈 보육원(Love and Hope Children's Home)의 박훈철 장로 (Park hun CHul)가 컴패션 초기를 회상합니다.

저는 대구 K-10 러브 앤 호프 칠드런즈 보육원(Love and Hope Children's Home)의 박훈철 장로입니다. 우리 보육원은 1952년 1월 전쟁 당시 한국에 주둔 중이던 제50 미국 공군의 도움으로 시작

²양 떼를 떠나서(I was a wandering sheep): 한국 찬송가 227장

되었습니다. 1954년까지 92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1956년 12월에 저의 신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스완슨 목사님께 편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기독교 간증과 함께 저의 보육원 상황을 썼고, 12일 후인 12월 17일에 목사님께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저를 격려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보육원을 돕겠다는 목사님의 결정을 알려셨습니다. 저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78개의 어린이 양육 정보를 준비해서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목사님께 편지를 썼고, 목사님께서 제 편지에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대구에 있는 장로교 선교부의 회계인 조지 윌슨(George Wilson) 목사님을 통해 12월에 어린이 1인당 1.5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편지 번역자는 불교도였습니다. 그는 스완슨 목사님과 저 사이의 서신을 번역하면서 그 내용에 감동했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봉천동 교회(Bongchun Dong Church)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은 1월 초에 도착했고, 어린이 1인당 3달러였습니다. 1958년 초여름, 목사님은 대구에 오셔서 라이스(Rice) 목사님 댁에서 지내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보육원을 방문하셨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착한 사마리아인을 인용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독창으로 ³“양 아흔아홉 마리는(There Were Ninety and Nine)”을 부르시고,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회(Evangelistic Association)의 김사관(Kim Sa Kwan) 목사님이 운전하는 2.5톤 트럭을 타고 진해, 순천, 강원도, 서울을 여행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보육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화장실과 집수리를 위한 도면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저에게 기금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기억력이 좋으셨습니다.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목사님이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입었습니다. 한번은 어린이들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제 학비를 지불해 주셔서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신학교(Central Seminary) 사회복지학과에 등록하여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کمپەشەن이 대구사무소를 개설하고 많은 보육원이 کمپەشەن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제 이상이 현실과 너무 멀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마침내 스완슨 목사님께 “کمپەشەن의 지원을 받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원장님의 보육원에 대한 کمپەشەن 지원은 그 누구도 아닌 제가 결정했습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다정한 모습과 목소

³양 아흔아홉 마리는(There Were Ninety and Nine): 한국 찬송가 297장

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지금 여러분은 ⁴"The Old Fashioned Home"을 부르시는 스완슨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 음악 -

1977년 2월 11일, 한국사무소에서 녹음

1977년 2월 21일, 전숙이(Sookie Chun) 필사

⁴The Old Fashioned Home: Chauncey R. Piety가 1954년경에 작곡한 미국 전통 복음성가